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감람산에 올라가서 성전붕괴를 선언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예수의 공생애는 사실상 끝이 난다. 예수는 더 이상 군중들과 함께 다니지도 않고, 지배체제 지도자들과 논쟁도 않으며, 따로 제자들에게 비밀스런 가르침을 주지도 않는다. 이제 예수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간다. 예수는 줄곧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지만, 제자들 또한 줄기차게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결과가 예수의 수난과 처형 그리고 부활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번 장에서는 예수가 당국에 잡히기까지 이야기만 다룬다.

본문은 크게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된다. 하나는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몸에 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가 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일이다. 그 과정에 자신의 가치관(믿음)에 충실한 예수와 예수를 배반하는 제자들 모습이 겹쳐서 지나간다. 가룟 유다는 그 중 으뜸으로 예수를 파는 역을 맡지만 모든 계획은 예루살렘 지배체제의 은밀한 계획과 철저한 감시하에서 이루어진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In Memory of Her)

예수가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인이 들어와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는다. 문둥병자와 함께 있는 것도 사회적으로 문제시될 만한 자리에 낯선 여인까지 등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여인의 뜻하지 않은 방문과 돌발적인 행동을 나무라기 보다는 여인이 낭비한 돈을 아까와 한다. 삼백 데나리온이면 일반 노동자의 일년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다.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서슴잖고 했을까? 제자들은 이 행위를 낭비로 여겼지만, 예수는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예비해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한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지만(8:31; 9:31; 10:33-34), 그들은 늘 깨닫지 못했다. 오직 이름없는 여인만이 예수의 때와 시기가 당도했음을 알아차린다. 예수는 말한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여인의 행위도 같이 전하여 이 여인을 기억하라(14:9).

모든 복음서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각각의 전개방식과 의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마 26:6-13; 막 14:3-9; 눅 7:36-50; 요 12:1-8). 대부분 복음서들에 이 사건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수를 제거하려는 계획 이후에 등장하는데, 유독 누가복음에는 여인의 이야기가 예수의 수난과 동떨어져 위치한다(7:36-50). 그리고 이 여인을 기억하라는 명령 대신에 예수를 기억하라는 명령이 등장한다(눅 22:19; 고전 11:24-25). 물론 역사적으로 바울 서신이 먼저 쓰였다고 보고, 성만찬 제정과 함께 쓰인 문구가 마가복음에 역으로 도입되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예수에게 부쳤던 찬사를 떼어 이름없는 한 여인의 행실에 돌리는 격이니 매우 예외적인 일로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혹은 여인을 기억하라는 전승이 따로 존재했다고 볼 수도 있다. 마가복음은 여인의 믿음을 복음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전하고자 했다. 무엇이 먼저가 되었든—예수에 대한 기억 명령이든 여인에 대한 기억 명령이든—교회사를 통해 여인은 기억되기 보다 서서히 잊혀져 갔다.

예수의 죽음을 앞두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드러난 두 개의 상반된 반응이 이채롭다. 이름없는 여인은 예수의 죽음을 예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제자들은 여인이 낭비한 값비싼 향유에 눈을 돌린다. 돈의 위력, 세상의 가치관이 여실히 들어나는 장면이다. 마침내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동조하거나 방관하게 되는데, 유다의 선택 역시 돈이었다(14:10-11).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종종 이 말은 가난한 자를 충분히 돕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왜곡되어 쓰인다. 가난은 임금도 어찌지 못한다. 마치 가난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인데, 가난이 항상 있음을 몰라서 한 이야기일까? 예수는 지금 일반사람들에게 강연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을 나무라는 소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가난은 잘못된 제도의 결과다. 지배체제에서

소수를 위한 정책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가난에 처한다. 이런 피폐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 생활해야 할 자리, 친구로 삼고 더불어 살아야 할 사람들은 권력과 물질을 쥐고 흔드는 힘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도의 피해자들인 가난한 자, 억눌린 자와 함께 하는 것임을 상기시킨다(10:15, 42-45). 문자적으로 “너희가 가난한 자와 함께 한다”(14:7, You always have the poor with you—NRSV)는 말은 가난한 자를 너희 삶 속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제자들의 선택과 행동을 촉구한 말이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그들은 항상 가난한 자와 운명을 함께 해야 마땅하다는 말이다.

최후의 만찬

예수가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식사는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일어난다(막 14:7). 그렇다면 이것이 유월절 만찬일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분명 아니다. 최후 만찬, 유다의 배신, 그리고 예수의 수난과 처형(요 18:28, 39; 19:14)이 모두 유월절 이전에 일어난다(요 13:1).

유월절(逾越節)은 말 그대로 유월(pass over)—‘넘어가다’, ‘건너가다’는 의미다. 이 말의 어원은 출애굽 당시 애굽 사람의 장자를 치는 하느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건너 뛰었다는 이야기에서 출발한다(출 12:13). 애굽의 노예생활, 당시 지배체제의 속박에서 벗어남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니산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아 준비하고, 실제 음식을 먹는 것은 다음날인 제 15일이다. 유대력이 저녁부터 시작해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계산함에 따라, 14일 마지막은 해질 때까지고, 해진 이후는 15일이 된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을 보내 유월절을 예비하도록 시킨 것은 이런 관습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 발효된 음식, 곧 누룩이 남아 있지 않도록 준비한 것으로 본다(출 12:15, 19). 그리고 그날 저녁이니 마치 예수가 유월절 식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유월절 예비일에 처형된다(15:42).

왜 유월절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가 유월절 양을 먹었을까 하는 질문과 직접 관련돼 있으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물음이다. 예수의 죽음이 유월절과 시기적으로 우연히 일치할 수도 있지만 모든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은 예수의 죽음을 유월절 이전에 위치한다. 당연히 예수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못하고, 따라서 예수는 상징적으로 유월절 양이 된다. 그럼 그 의미는?

예수를 유월절 양으로 이해한다면, 예수의 죽음은 구약성서의 출애굽 언약과 관련이 있고 또 이것은 성전 제사제도의 종식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예수가 새로운 속죄제물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럴 경우, 다만 제물만 바뀔 뿐 속죄제물에 기초한 성전체제는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마치 오늘날 많은 국가의 정치체제와 사회제도에서 지도자 몇 사람 바뀌는 것으로는 그 억압적인 독재, 군사, 지배체제가 여전히 변하지 않음과 같다. 막 10:45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는 많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을 보여주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을 위해 예수가 의도적으로 피 흘려 죽은 것은 아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사람들은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을 보았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이 되었다.

예수의 삶과 가치관은 당시 지배체제와 부딪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음을 몰고 왔다. 이것이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의미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제국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하느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는 자신의 삶(살과 피)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과의 단절을 선언한다(출 24:8; 막 14:24). 하느님과 맺는 언약예식은 당시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지배이데올로기, 그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추구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열 두 부족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선지자들의 충고와 가르침 속에서 왕정을 통해 이어져 내려오다가 왕정의 멸망과 함께 마침내 성전체제로 넘어간다. 이렇게 출애굽 대항공동체를 지탱해온 것이

성전체제였다면, 세월이 흐르며 성전체제는 또 다른 지배체제로 전락하였다. 이제 성전체제는 더 이상 하느님과 맺은 언약을 수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타파해야 할 대상이 되어 버렸다. 예수의 정치적 삶은 성서에 면면히 흐르는 탈지배체제의 연장선에서 있다.

예수가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 예비 식사였다. 그리고 이 만찬은 예수가 행한 두 번의 군중에게 떡 떼는 사건을 연상시킨다. 거기에 비록 잔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먹을 수 있느냐는 물음 속에 잔은 고난과 죽음을 연상한다. 겐세마네의 기도에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주문에서 우리는 역시 죽음의 그림자를 본다.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떡과 잔은 예수를 말하고, 더 정확히는 예수의 삶과 운명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유월절 예비 식사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면, 이것이 예수가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으로서, 예수가 늘 평소에 생활해 오던 일의 결정판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예수는 초지일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간다.

제자들의 운명

예수는 외로이 자신의 길을 가는 반면,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배신한다. 유다는 예수를 팔기로 결심하고 제자상에게 달려가고(14:10),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일제히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다(14:50).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대체사장을 필두로 한 지배체제의 은밀한 계획 속에 진행된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는데(3:6), 이제는 그것을 실행에 옮길 뿐이다(14:1). 그들은 제자들 사이에 첩자를 하나 심어 놓고 예수를 잡는다. 제자들은 승리의 그리스도를 원했고, 힘있는 자리를 구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예수가 잡히자 결국 모두 도망하고 만다. 이것으로 끝인가?

예수는 제자들 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약속한다(14:28). 예수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의 삶을 지속하도록 명한다. 갈릴리는 예수가 하느님 나라 운동을 시작한 곳이다. 예루살렘과 비교할 때, 갈릴리는 장소가 아닌 새로운 이념과 가치관의 출발점이다. 예수는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을 것을 약속한 셈이다.

또한 제자들의 운명은 이름없는 여인과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암시된다.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이 처음부터 없었을까? 초대교회에서 여인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움직임과 함께(고전 14:34-35) 여인의 공적이 잊혀졌을 수도 있지만, 보다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마가복음 저자가 의도적으로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 해서 그 믿음이 어느 한 개인의 것으로 치부되고 제한되는 것을 막는다. 이제 여인의 믿음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열려있는 모든 제자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본문 마지막에 젊은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데(14:51-52), 그가 다시 예수의 부활한 장소에 나타난다(16:5). 마가 공동체 자신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깨어 있음과 기도

깨어 기도하라. 이미 예수가 앞으로 당할 일을 앞두고 미리 경고한 말이다(13:34, 35, 37). 이제 운명의 시간이 가까이 오면서 예수는 다시 제자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명한다(14:34, 37, 38). 어찌면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인지도 모른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식이 약하도다. 그런데 깨어 있어야 할 때에 베드로는 잔다(14:37, 40). 예수를 안다고 말해야 할 순간에 그는 모른다고 부인한다(14:68, 70, 71). 깨어있지 못한 결과다.

깨어있음을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과 연관해 생각하면 기도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통해 무엇인가를 구한다고 생각한다. 굳이 틀렸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도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다. 기도를 들어주는 이(하느님) 입장에서 그 기도를 왜 들어주어야 하나? 기도는 최소한 다음의 세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구하기(Asking).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부르짖음의 단계다.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자연스런 보호본능, 생존본능의 발로다. 누구나, 어느 때나 할 수 있으며, 예수도 고통 중에 울부짖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막 14:36a). 소원을 비는 행위 그 자체로 선악, 옳고 그름을 판단할 일은 아니로되, 기도가 이 초기 단계에만 머물고 있으면 일방통행이 된다. 내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든 기도, 소원이 다 하느님이 들어줄 만한 기도일까? 어떤 의미에서 내 기도가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일정한 판단의 근거, 잣대가 있어야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기도를 끝맺는 인사말이 아니라, 내 기도가 마치 예수가 기도했다고 해도 믿을 만큼 예수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뜻이다.

생각하기(Meditating). 기도의 다음 단계는 회개, 곧 생각 바꾸기이다. (제 2 장, ‘회개’ 참조). 어떤 필요와 욕구가 단순한 내 욕심이 아니고 기독교의 핵심 혹은 예수의 가르침에 부응하려면, 그것이 성서와 전통과 만나야 한다. 기도의 출발은 내 아픔, 소원을 자연스레 쏟아내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그 후에는 성서와 전통의 가르침에 의해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막 14:36b). 마치 하느님 방송을 듣는다고 가정할 때, 그 주파수에 맞게 다이얼을 맞추는 작업에 비유할 수 있다. 예수라면, 지금 이 자리,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행동하기(Transforming). 기도는 말로 끝나는 것도, 생각과 회개(μετάνοια)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말과 생각이 아니라 선택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기도의 끝은 찬양이고 이것이 또한 삶으로 옮겨져야 한다. 찬양하는 이유는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응답은 내 소원과 욕구가 충족되었다기 보다는, 내 소원과 필요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따라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야 할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수는 겟세마네에서 기도 후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전진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산다. 그리고 최종 판단은 내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있다. 이 사람은 진정 하느님의 사람이구나(15:39).

결론적으로 기도란 현 자연질서의 변화 혹은 파괴를 구함이 아니라(1 단계), 현실을 보는 내 눈과 가치관을 바꾸고(2 단계),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감을 뜻한다(3 단계). 기도를 통해 하느님이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세상과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다. 예수의 기도는 인간의 삶의 모범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예외적인 것을 구함이 아니요, 내가 처한 환경에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다. 찬양과 마찬가지로 기도의 마침표는 찬양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다른 이들이 내 삶을 보고, 내 삶 속에 나타난 하느님을 볼 수 있다면, 내 기도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생각해 보기

1. 막 14:25,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결단코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뜻하는 바는? 새 것이란?
2. 나는 어디(상황)까지 예수를 좇을 수 있나?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근거는?
3.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는? (내가 함께 하는 가난한 자는?)